



# 동남아 경제정보

해외경제연구소

개도국신용평가실

2001. 12. 10.

## ◆ 제목: 인도네시아, 석유·가스 산업의 민영화 추진

### I. 석유·가스 산업의 개황

#### □ 최대 재정수입원·외화가득원 역할

	재정수입(10억 루피아)	상품수출(백만 달러)
석유산업	57,857(20.2%)	7,742(12.6%)
가스산업	17,369 (6.1%)	6,624(10.8%)
계(기타 포함)	286,006(100%)	61,493(100%)

주: 재정수입은 2001년 수정예산안 자료이며, 상품수출은 2000년 기준임.

- 석유·가스 산업은 재정수입의 26.3%, 상품수출의 23.4%를 차지하는 최대 산업임.
- ▶ 1980년대 초 이전에는 석유산업이 재정수입의 70%, 상품수출의 80% 이상을 차지한 주도 산업이었음.

## □ OPEC 회원국 · 최대 LNG 생산국

	매장량	생산량(2000)	주요 유전
원유	51억 배럴	126만 b/d	Riau/Belanak field
가스	77조 ft <sup>3</sup>	2.1조 ft <sup>3</sup> /y	Tangguh/Arun field

주: 원유 생산량은 OPEC회원국 생산량의 4.7%, 가스 생산량은 세계 생산량의 3.0% 수준에 이릅니다.

- 석유탐사는 국영 석유 · 가스공사인 Pertamina社와의 생산분배 계약(Production Sharing Contracts)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.

## □ 원유 · 천연가스 생산량 감소

	1996	1997	1998	1999	2000
원유(백만 배럴)	582.7	576.9	568.8	545.7	386.7
천연가스(10억 ft <sup>3</sup> )	3,164	3,166	2,979	3,063	2,138

자료: EIU, *Country Profile*, Nov. 2001.

- 1980년 중반 이후 세계적으로 석유시장이 침체되자,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유이외 산업의 수출촉진 정책 추진
  - ▶ 수출산업의 다양화 도모
- 1997년 외환 ·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 부족으로 석유 · 가스 산업의 생산도 감소추세 시현

## II. 석유 · 가스 산업의 민영화 추진과 시사점

### □ 석유 · 가스 산업의 민영화 법안 채택

- 2001년 10월 23일, 석유 · 가스 산업의 downstream(imports, supply & distribution)<sup>1)</sup> 분야에서 정부의 독점적 운영 철폐
  - ▶ 1971년부터 Pertamina社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던 국영 석유 · 가스 분배독점 법안의 철폐로 민영화 추진 예정<sup>2)</sup>
  - ▶ 재정수지 적자 · 외채상환 부담 완화로 IMF 요구조건 부응<sup>3)</sup>
  - ▶ 재정지출의 20% 이상인 에너지산업의 정부 보조금 지원감축 계기

### □ 지방 의회, 석유 · 가스 산업의 민영화 반대입장 표명

- 2001년 11월 중순에도 Riau, Aceh, West Papua, West & East Java 지방 의회는 석유 · 가스 산업의 외국기업에 개방반대 의결
  - ▶ 기간산업의 민영화로 표면적으로는 석유 · 가스 개발의 안정적인 수익배분이 불투명하므로 유전관리의 권한부여 요구<sup>4)</sup>

---

1) 석유 산업의 수송 · 정제 · 판매 분야로, 이에 대칭되는 upstream은 탐광 · 개발 · 채유 분야임.  
2) 1년 이내에 downstream을 관장하는 agency가 설립되고, 4년 이내에 fuel distribution 관리를 인수함(단, Pertamina社는 2년의 과도기간 이후에 유한책임회사로 남게됨).  
3) IMF는 차관지원 조건으로 2001년 중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을 3.7% 이내로 억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.  
4) PT Caltex Pacific의 Coastal Plains Pekanbaru(CPP)에 지방정부가 동의하지 않은 사례도 있음.

## □ 석유·가스 산업의 민영화 및 지방재정의 분권화에 따른 기대효과

- Pricewaterhouse Coopers의 Pertamina社에 대한 會計監査에 따르면, 1999년 중 同社의 부정부패 및 비효율성으로 40억 달러 이상이 낭비되었다고 지적함

### ▶ 민영화 추진:

- ▷ 석유·가스산업의 독점적 시장구조 → 경쟁 체제로 전환
- ▷ 산업 전반의 효율성 개선 기대

## - Aceh(7월), West Papua(10월) 지역의 재정자치 법안 승인

### ▶ 지방재정 분권화 추진:

- ▷ 지방 정부의 석유·가스 수익배분 비율을 15%에서 70%로 확대 허용  
(석유·가스 산업의 민영화와 관련한 지방정부의 개입 확대 예상)
- ▷ 중앙정부: 자원개발의 수익 귀속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(-)  
지방정부에 대한 에너지산업 보조금 지원 감소(+)
- ▷ 지방정부: 자원개발에 따른 침체된 경기 회복, 자원수입 증대  
재정관리의 자율성 향상 예상(+)

문의 : 개도국신용평가실 과장 조양현 ☎ 3779-6654, yhjo@koreaexim.go.kr